

새만금 자연환경.산업인프라가 창의적 영상과 만난다

※ 이재봉 기자 | 2025.12.05 15:49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전주영상위와 업무협약
산업단지 가치와 영상 콘텐츠 결합 통해 경제.문화 영향력 확대



새만금의 광활한 대지와 창의적 영상산업이 손을 맞잡았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전주영상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국내외 영화·드라마 제작의 핵심 무대로 육성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행정 협업을 넘어 산업단지의 가치와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을 결합해 지역 경제와 K-문화 산업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협약이 실제 콘텐츠 제작 유치로 이어질 경우, 산업단지의 대외적 인지도 강화는 물론 지역 문화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이날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 자연·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영상 제작 및 유치 지원, 촬영 인프라 제공, 제작사 행정 지원, 공동 홍보 및 행사 개최 등 다방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새만금의 독특한 경관과 확장성 높은 산업 기반이 영상 제작 환경과 결합할 경우, 지역 전체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안재호 단장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업 인프라를 영상 콘텐츠와 결합하면 그 자체로 막강한 홍보 자원이 된다”며 “새만금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영상 산업과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상위원회 역시 이번 협약을 전북 영상산업 지형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이미 영화·드라마계에서 주목받는 대규모 로케이션 자원”이라며 “이번 협력으로 전북 전체가 새로운 K-영상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우수한 제작환경과 풍부한 촬영 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제작사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영상 도시 전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빠르게 조성 중인 배후 산업시설을 갖추고 있어 영상 제작자들 사이에서 가능성이 큰 신생 로케이션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봉 기자 bong019@naver.com

저작권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